| 이슈페이퍼 2021-07 |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강은진

1. 배경 및 문제점
2. 지역의 육아친화 정도 조사 결과
3. 정책제언
참고문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 요 약 ♦♦♦

- 지역 불균형 문제는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귀결되고,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 낮은 삶의 질, 저출생과도 연결됨.
- 신도시, 도시재생, 도농복합 지역을 선정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인지를 점검하는 육아친화성을 살펴본 결과, 도시재생지역, 도농복합의 읍·면지역,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된 지역의 육아환경 공급수준이 낮으며, 체감도 역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본고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도시형, 도시재생형, 도농복합형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필요성과 강조점을 제시함.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유관사업 점검, 지자체의 관련 TF 팀 구성 및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한 육아친화성 진단과 육아친화마을 추진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함.

1 배경 및 문제점

가. 저출생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계

- 현 정부는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함.
  - 정부는 '[전략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1]과 '[전략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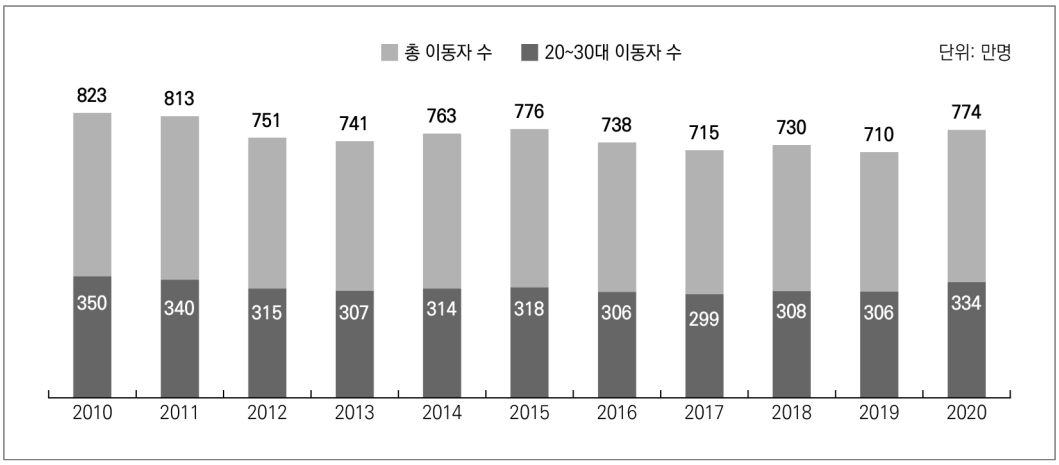
---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 2020)」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함.

1) [전략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혁신도시, 산업단지, 생활 SOC 확충 등의 창업, 혁신,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 '79.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 여건을 재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쇠퇴지역의 혁신화를 꾀하고자 함.

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2]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지역의 불균형은 인구, 사회-경제 전 분야와 직결되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내인구통계(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1: 5)에 따르면, 20~ 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인구이동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임.



[그림 1] 총 이동자 수 및 20~30대 이동자 수 추이, 2010~2020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21. 1. 26).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p.5.

  - 시도별 순유입률을 보면 세종과 경기가 전 연령층에서 높아진 반면, 대구와 대전은 순유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 김포시, 하남시 순이며, 순유출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광명시, 경북 울릉군 등임(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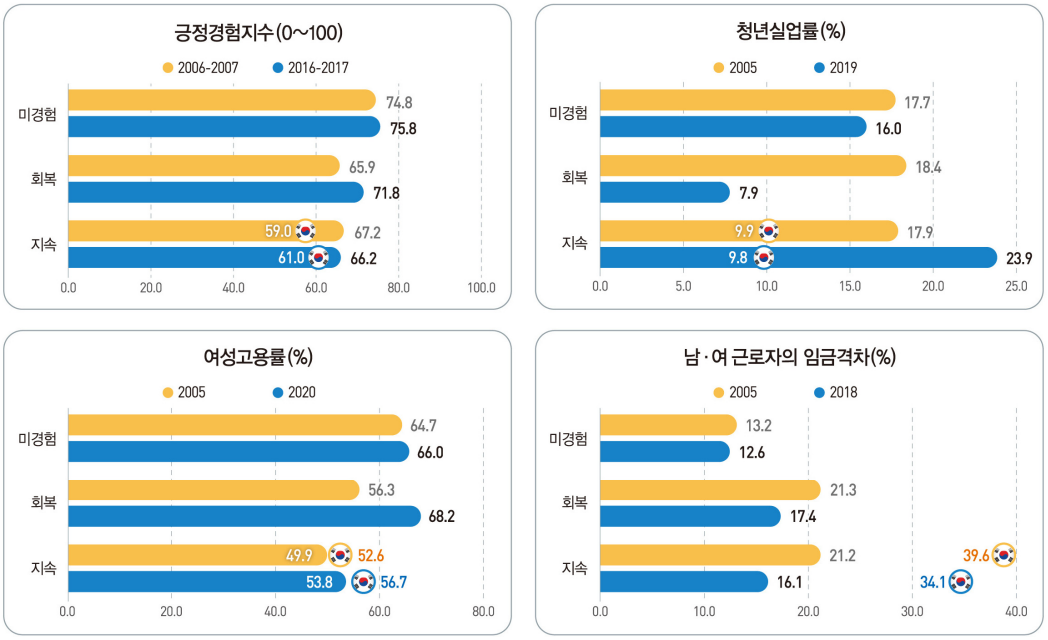
2) [전략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에서는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통해 농산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일반적인 취업가능성 보다 양질의 일자리 비중, 교육기회와 문화시설 접근성, 주거여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편익이 청년인구이동의 결정 요인이며, 결정 요인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년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시설 접근성으로 분석됨(김유현, 2021: 361).
  - 비수도권 거주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지방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시설의 질 저하, 지역에 남은 주민과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 지방소멸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나. 초저출산 시대 육아친화 가치관의 중요성

- 수도권 30대 남녀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비혼을 선택한 골드미스'와 '품절남이 된 전문직 남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비교 근거로 고학력, 전문직 30대 여성의 혼인 지연 현상과 30대 후반의 고학력 전문직 남성의 낮은 미혼율을 제시하고 있음(박시내, 2021).
  - 특히, 여성의 비혼 선택 이유는 저출산 극복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함.
- 최근 통계청에서 실시한 「초저출산 경험 및 회복 국가의 특성 분석(김수영·송현정, 2021)」에 따르면, 초저출산을 미경험하였거나, 혹은 경험 후 회복한 국가의 '공공지출, 삶의 질, 경제적 부담, 양성평등' 등 저출산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초저출산 지속국가에 비해 삶에 대한 긍정적 경험지수나 청년 실업률이 낮았다고 보고함.[3)]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삶에 대한 낮은 긍정적 경험지수(61.0%), 줄어들지 않는 청년 실업률(9.9%→9.8%), 낮은 여성 고용률(56.7%), 여전히 큰 남성·여성 근로자의 임금 격차(34.1%)를 보이고 있음.

3) - 초저출산 경험 후 지속국가: 2019년 이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1.3이하인 경우(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 초저출산경험 후 회복국가: 일본,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등
- 초저출산 미경험 국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임



[그림 2] 초저출산 지속·회복·미경험 국가의 저출산 관련 지표별 평균추이 비교

자료: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data, Jobs & ILO.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보도자료(2021. 9. 29) p.7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일본은 지방소멸에 대비해 2060년까지 1억 인구를 목표로, 청년 실업률의 감소, 여성고용의 확대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연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분리해 각 정책이 명확한 목적을 갖도록 한 것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김수영·송현정,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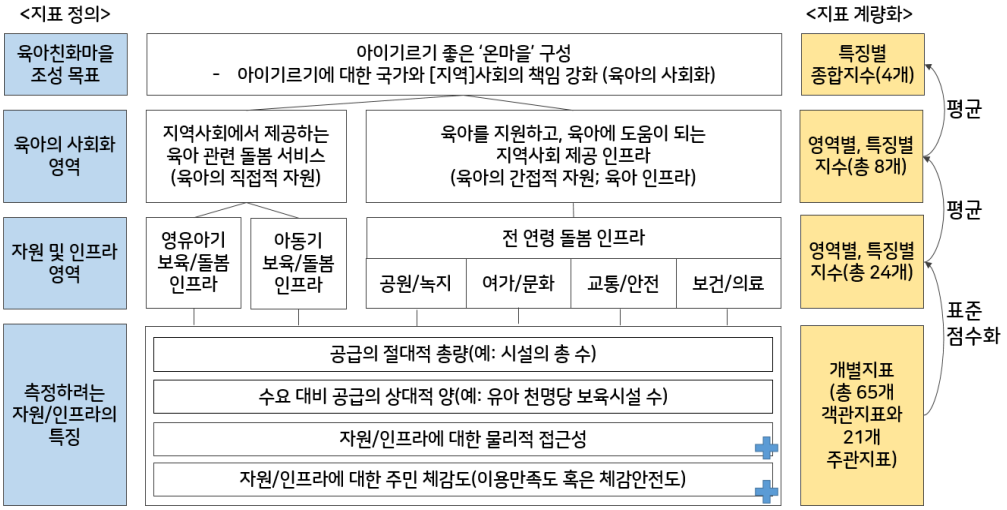
2 지역의 육아친화 정도 조사 결과[4)]

- 육아정책연구소는 2019년부터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 육아친화성 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함. 2020년에는 신도시, 도시재생, 도농복합 지역 중 세 지역을 선정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즉 육아친화적 환경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 신도시는 인구순유입률 상위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를 선정하였으며, 입주 초기인 별내동을 포함하였음. 반대로 도시재생지역은 인구순유출률 상위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로 선정하여, 인구가 많은 철산동·하안동과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광명3·5·7동을 포함해 조사하였음. 마지막으로 도농복합지역인 충청남도 공주시를 선정함. 공주시는 대전, 세종, 아산, 천안과 같은 중소도시가 면해 있어 인구 유출의 애로점을 지닌 곳으로, 신관동·월송동과 신풍면·유구읍을 포함해 조사하였음.

가. 육아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 본 연구는 아이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육아인프라)에 대해 살펴보고, 설문조사 및 주민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육아공동체 문화를 살펴봄.
  - 육아친화마을은 1차년도 연구에서 진행한 '아이 기르기 좋은 온마을 구성' 목표를 근거로 하여, 2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체계화함. 육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직접 자원과 놀이공간, 문화시설, 병의원 등의 간접 자원을 포괄하여 총 6개 영역에 대한 24개 지표로 구성함.
  - 각 지표는 절대적 공급지수와 수요대비 상대적 공급지수, 자원/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자원/인프라에 대한 주민 체감도 등 크게 4개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총 65개 객관지표와 21개 주관지표로 구성함. 주민 체감도는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임.

4)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 2020)」의 결과를 인용함.



[그림 3]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

- 육아친화 영역별 및 종합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함.
  - 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 아동기 보육/돌봄 인프라, 공원/녹지 육아인프라, 여가/문화 육아인프라, 교통/안전 육아인프라, 보건/의료 육아인프라의 6대 영역에 관한 지수는 지표 종류별 해당 영역에 관한 세부지표들의 백분위 점수의 평균으로 도출하며, 이를 위한 산식은 〈표 1〉과 같음.

〈표 1〉 영역지수 산출 방법

구분	산출 방법
영역지수 산출방법	$A_{ij} = \frac{\sum_{i=1}^{n_k} a_{ij}}{n_k}$ A_{ij} : j읍면동의 i영역(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 ..., 보건/의료 육아인프라)지수 값 n_k : 지표종류(절대적 공급/상대적공급/물리적접근성/주민체감도)별 i영역을 구성하는 변수의 수

  - 6대 영역을 포괄하는 2대 상위영역 및 2대 상위영역을 합산한 최종 종합지수도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식은 〈표 2〉와 같음.

〈표 2〉 최종 종합지수 산출 방법

산출 방법
$(\text{육아의 직접적 자원})_{ij} = \frac{(\text{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 영역지수})_{ij} + (\text{아동기 보육/돌봄 인프라 영역지수})_{ij}}{2}$
$(\text{육아의 간접적 자원})_{ij} = \frac{(\text{공원/녹지 영역지수})_{ij} + (\text{여가/문화 영역지수})_{ij} + (\text{교통/문화 영역지수})_{ij} + (\text{보건/의료 영역지수})_{ij}}{4}$
$(\text{육아친화성 종합지수})_{ij} = \frac{(\text{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수})_{ij} + (\text{육아의 간접적 자원 지수})_{ij}}{2}$

- 이상의 방법을 통해 육아친화성 종합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육아친화성 종합지수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과 간접적 자원 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임.
  - 신도시(남양주), 광명시(도시재생), 공주시(도농복합)의 육아친화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절대적 공급지수는 남양주시가 30.96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광명시(26.91)가 높게 나타남.
  - 상대적 공급 지수는 공주시가 23.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대적 공급 지수는 육아인프라를 이용하는 인원 대비 공급비율을 살펴본 것으로 공주시의 영유아 인구수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 물리적 접근성은 육아인프라에 접근하는 편의성을 살펴보는 것임. 광명시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지수는 낮지만, 실제로 육아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우수함을 알 수 있었음.

〈표 3〉 지역 유형별 육아친화성 종합지수

지역	기술통계	육아친화성 종합지수		
		절대적 공급	상대적 공급	물리적 접근성
남양주시 (신규조성, N=16)	평균	30.96	21.68	57.88
	표준편차	18.36	9.72	20.65
	왜도	1.34	0.13	-0.79
	변동계수	0.61	0.45	0.36
광명시 (도시재생, N=18)	평균	26.91	20.79	73.45
	표준편차	19.45	8.28	20.62
	왜도	1.24	-0.14	-2.31
	변동계수	0.72	0.40	0.28

지역	기술통계	육아친화성 종합지수		
		절대적 공급	상대적 공급	물리적 접근성
공주시 (도농복합, N=16)	평균	22.71	23.36	40.31
	표준편차	15.50	10.93	23.84
	왜도	1.01	0.91	0.64
	변동계수	0.68	0.47	0.59

나. 지역의 육아친화정도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유형별 육아인프라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살펴봄.
  - 설문조사 지역은 신도시지역(남양주), 도시재생지역(광명시), 도농복합지역(공주시)의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부모 각각 364명, 391명, 343명으로 총 1,098명임. 각 지역 중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동'을 표집하여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음.[5)]

〈표 4〉 지역 유형별 설문조사 대상

단위: 명

	남양주(신도시)			광명시(도시재생)				공주시(도농복합)		
지역 및 연령비율	별내 신도시 (신축단지)	그 외 별내지구	계	철산동	하안동	광명 3·5·7동	계	유구읍·신풍면	신관동·월송동	계
영아	17	69	86	39	64	17	120	25	66	91
유아	33	133	166	53	69	51	173	26	108	134
초등저학년	16	96	112	29	36	33	98	39	79	118
합계	66	298	364	121	169	101	391	90	253	343

- 각 지역의 육아인프라 중에 육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원에 대한 체감도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프라에 대한 체감도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 육아친화성 지수는 남양주시(78.66)와 공주시 중 신관동/월송동(77.71), 광명시 중 철산동(78.30) 및 하안동(77.32) 주민들에게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시의 유구읍과 신풍면(67.85), 광명시의 광명3·5·7동(74.96)은 낮게 나타남.

5) 설문조사는 1차년도 연구인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권미경 외, 2019)」에서 육아친화마을의 단위가 '동'이나 '단지'라는 주민들의 인식에 근거해, 시청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을 추천받아 설문을 진행하였음. 남양주시에서도 입주초기인 별내신도시 신축단지를, 광명시에서도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광명3,5,7동을, 공주시에서는 유구읍과 신풍면을 표집함.

〈표 5〉 지역 유형별 영역별 체감도 지수

지역		육아의 직접적 자원 영역			육아의 간접적 자원 영역					육아 친화성 종합 지수
		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 영역	아동기 보육/돌봄 인프라 영역	상위 영역 지수	공원/녹지 육아 인프라 영역	여가/문화 육아 인프라 영역	교통/안전 육아 인프라 영역	보건/의료 육아 인프라 영역	상위 영역 지수	
공주시	유구읍·신풍면	76.63	76.67	76.65	54.50	50.00	82.07	49.66	59.06	67.85
	신관동·월송동	80.64	76.12	78.38	73.37	77.75	86.80	70.24	77.04	77.71
남양주시	별내동·별내면	77.58	78.46	78.02	79.19	78.62	88.35	71.06	79.31	78.66
광명시	광명3·5·7동	73.15	71.06	72.11	73.77	80.96	87.92	68.57	77.81	74.96
	철산동	77.42	77.07	77.25	74.21	80.19	88.48	74.56	79.36	78.30
	하안동	76.69	74.69	75.69	73.63	79.25	87.89	75.07	78.96	77.32

- 자녀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급할 때 아이를 봐줄 곳이 없다’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개인 시간이 부족해 내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23.5%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급할 때 아이를 봐줄 곳이 없다’는 응답은 공주시에서 도시지역 거주 부모들이 읍·면지역 부모들에 비해 많았고, 광명시에서 도시재생 지역 거주 부모들에게서 많이 나타남.
  - 한편 ‘양육 및 교육 비용의 부담’은 남양주의 별내동, 공주시의 도시지역(신관동, 월송동)에서 많았음.
  - 남양주시 내에서도 타 지구보다 신축단지의 부모들은 ‘이용가능한 기관이 부족하다’ ‘개인 시간이 부족해 내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음.
  - 공주시는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구하거나 상담할 곳이 없다’는 의견은 읍·면지역 부모들에게 많이 나타난 반면,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동지역 부모들에게서 나타남.

〈표 6〉 지역 유형별 자녀양육 시 애로점

단위: %(명)

구분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용 가능한 기관이 부족하다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개인시간이 부족하여 내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된다	없음	계(수)
전체	33.3	5.2	5.7	23.5	9.7	3.2	16.4	3.0	100.0 (1,098)
남양주시	28.3	7.7	6.6	23.4	8.5	3.0	20.3	2.2	100.0 (364)
별내동	28.2	6.0	7.0	21.8	9.1	2.7	22.5	2.7	81.9 (298)
별내위스테이	28.8	15.2	4.5	30.3	6.1	4.5	10.6	0.0	18.1 (66)
$x^2(df)$	14.730(7)*								
광명시	34.3	5.4	5.6	25.6	9.7	3.6	14.3	1.5	100.0 (391)
철산동·하안동	33.8	6.2	4.8	26.9	10.3	3.1	13.8	1.0	74.2 (290)
광명3·5·7동	35.6	3.0	7.9	21.8	7.9	5.0	15.8	3.0	25.8 (101)
$x^2(df)$	6.791(7)								
공주시	37.6	2.3	5.0	21.3	10.8	2.9	14.6	5.5	100.0 (343)
신관동·월송동	41.5	0.8	4.0	21.3	9.5	2.4	16.6	4.0	73.8 (253)
유구읍·신풍면	26.7	6.7	7.8	21.1	14.4	4.4	8.9	10.0	26.2 (90)
$x^2(df)$	25.257(7)***								

* $p < .05$, *** $p < .001$.

-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네로 이사 온 주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2.6%가 '남편(아내)이나 나의 직장이 가까워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아이의 외조부모 집(처가)과 가까워서(15.4%)', '자연환경이 좋아서(11.7%)'로 응답됨.
  - 광명시와 공주시 각 지역 모두 '직장이 가깝다'는 이유가 많았으며, 공주시 내에서도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는 '아이의 친조모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많았음. 반면 광명시는 '아이의 외조모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많았음.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은 남양주시 별내동 거주자에게 많이 나타남.
  - 광명시 내에서도 철산동, 하안동 부모가 광명3·5·7동 부모보다 '남편이나 나의 직장이 가까워서'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공주시 내에서도 읍·면지역의 부모보다 동지역 부모가 '어린이집이 가까워서'를 많이 응답한 것도 특징적임.

〈표 7〉 지역 유형별 거주 이유

단위: %(명)

구분	남편(아내)이나 나의 직장이 가까워서	아이의 친조부모 집(시가)과 가까워서	아이의 외조부모 집(처가)과 가까워서	조부모 외 자녀를 돌봐 줄 지인이 가까이 있어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어린이집/ 유치원이 가까워서	근린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기타	계
전체	32.6	7.8	15.4	4.6	11.7	5.0	5.6	17.1	100.0 (1,098)
남양주시	19.5	3.8	13.5	5.5	25.5	3.0	7.1	22.0	100.0 (364)
별내동	20.8	4.0	13.8	4.4	27.2	3.0	5.7	21.1	81.9 (298)
별내위스테이	13.6	3.0	12.1	10.6	18.2	3.0	13.6	25.8	18.1 (66)
$x^2(df)$	12.500(7)								
광명시	36.8	10.2	22.5	3.8	5.4	3.3	3.3	14.6	100.0 (391)
철산동·하안동	41.4	10.0	21.0	2.8	5.9	3.1	3.8	12.1	74.2 (290)
광명3·5·7동	23.8	10.9	26.7	6.9	4.0	4.0	2.0	21.8	25.8 (101)
$x^2(df)$	17.109(7)*								
공주시	41.7	9.3	9.3	4.7	4.4	9.0	6.7	14.9	100.0 (343)
신관동·월송동	41.5	4.7	9.1	3.6	3.2	11.9	9.1	17.0	73.8 (253)
유구읍·신풍면	42.2	22.2	10.0	7.8	7.8	1.1	0.0	8.9	26.2 (90)
$x^2(df)$	47.175(7)***								

* $p < .05$, *** $p < .001$.

-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양육환경에 대해 평가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나타남. 특히 광명시 중 도시재생지역(광명3·5·7동)과 공주시의 평가 점수가 2점대로 낮게 나타남. 공주시 내에서도 읍·면지역의 점수가 동지역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표 8〉 지역 유형별 마을의 양육 환경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좋은 환경이다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	계(수)	평균
전체	11.5	71.9	15.3	1.3	100.0 (1,098)	2.9
남양주시	16.8	75.5	7.7	0.0	100.0 (364)	3.1
별내동	16.1	75.2	8.7	0.0	81.9 (298)	3.1
별내위스테이	19.7	77.3	3.0	0.0	18.1 (66)	3.2
$x^2(df)/t$	2.725(2)					−1.4
광명시	11.5	70.8	15.3	2.3	100.0 (391)	2.9
철산동·하안동	13.8	76.2	9.3	0.7	74.2 (290)	3.0
광명3·5·7동	5.0	55.4	32.7	6.9	25.8 (101)	2.6
$x^2(df)/t$	48.969(3)***					5.9***
공주시	5.8	69.4	23.3	1.5	100.0 (343)	2.8
신관동·월송동	7.1	77.5	14.6	0.8	73.8 (253)	2.9
유구읍·신풍면	2.2	46.7	47.8	3.3	26.2 (90)	2.5
$x^2(df)/t$	46.032(3)***					6.1***

*** $p < .001$.

- 거주 중인 마을의 육아친화적 공동체 문화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우리 마을/동네는 자녀 키우기에 안전하다'와 '우리 마을의 이웃들은 신뢰할 만하다'는 4점 만점 중 각각 3.7점, 3.1점으로 분석됨. 각 지역에 따라 평가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남양주에서는 별내위스테이가 전반적으로 별내동에 비해 육아친화적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하안동이 도시재생 지역보다 긍정적이었음.
  - 공주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우리 마을/동네는 이웃이 서로 아이들을 봐준다', '우리 마을 동네는 급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 '우리 마을/동네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부분에서 읍·면지역 부모의 평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공주시의 읍·면지역에서는 양육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간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아이키우기 안전하다는 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표 9〉 지역 유형별 마을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구분	우리 마을/동네는 자녀 키우기에 안전하다	우리 마을/동네는 이웃이 서로 아이들을 봐준다	우리 마을/동네는 급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	우리 마을의 이웃들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 마을/동네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전체	3.7	2.4	2.5	3.1	2.6
남양주시	3.9	2.8	3.0	3.4	2.9
별내동	3.9	2.6	2.8	3.2	2.7
별내위스테이	4.1	3.6	3.6	3.9	4.0
t	-2.1^{*}	-6.4^{***}	-5.2^{***}	-5.6^{***}	-10.0^{***}
광명시	3.6	2.1	2.2	2.9	2.3
철산동·하안동	3.8	2.1	2.2	3.0	2.3
광명3·5·7동	3.0	1.9	2.1	2.8	2.1
t	7.9^{***}	1.7	1.1	2.3^{*}	2.8^{**}
공주시	3.5	2.3	2.3	3.0	2.5
신관동·월송동	3.6	2.1	2.2	2.9	2.4
유구읍·신풍면	3.4	2.7	2.7	3.1	2.8
t	2.2^{*}	-3.6^{***}	-3.6^{***}	-1.8	-2.9^{**}

* $p < .05$, ** $p < .01$, *** $p < .001$.

3 정책제언

가. 지역불균형 상황에 따라 육아문제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필요

- 신도시형 육아친화마을
  - 입주 초기 제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도시에는 영유아 인구가 밀집되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같은 직접적 자원 외의 육아 인프라는 가장 늦게 형성됨. 이에 따라 정착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POP UP형 육아인프라”와 신규 육아가구에게 지역의 육아정보를 알려주고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육아코디네이터” 지원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신도시 입주가 예정된 시·군·구청은 입주민들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출산을 앞둔 첫아이 부모, 영유아 부모,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게 육아 상담을 제공하고, 육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소와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형 육아친화마을
  - 도시재생지역은 육아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반면, 노후화된 환경과 지역 주민의 육아공동체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특징이 있음. 노후화된 육아인프라의 개보수와 함께 지역의 육아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시·군·구청은 먼저 해당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아동참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당지역에 맞는 육아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와 지역주민 아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복합공간의 마련과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환경개선과 함께 마을의 육아친화적 공동체 문화가 함께 조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도농복합형 육아친화마을
  - 영유아 및 젊은 인구가 적고 초고령 인구와 다문화가구가 많은 것이 특징임. 그러다 보니 육아관련 인프라 자체의 공급 수준이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큼. 주로 일자리 때문에 거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공동체도

적은 상황이므로 농촌형 육아친화 공간 및 인력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이용자 수가 적고, 아동의 생애주기변화에 따라 필요 인프라가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존재함. 그러므로, 지역에 기 설치된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을 거점으로 육아관련 서비스의 인력과 사업을 연계 및 보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함.
- 현재 추진 중인 LH의 농촌 마을·학교 살리기 사업(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사례로 마을 조성 시 육아친화적 인프라 구성과 육아공동체가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농촌형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제안함.

나.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작을 위한 컨설팅 방향

- 육아친화마을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구성원 워크숍
  - 육아친화마을 추진은 해당 시·도나 군·구청 단위에서 업무협력을 위한 조직이 필요함. 단체장 직속 TF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진단하여 여건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육아친화마을 조성 초기에 육아친화마을과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후(예: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생활SOC 복합화사업, 농촌유토피아사업), 유사사업이 있다면 예산과 조직을 공유할 수 있는지 판단함.
  -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마을의 육아친화성 점검하고(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 활용), 우리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사업을 기획한 후, 해당 사업의 주체와 협력 부서 협조 구하는 절차를 취함.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조례 재정 및 조직 협력 구체화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 가치와 협력, 조직 구성 및 역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재정하여 업무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춤.

다. 지자체 육아친화마을 조성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보 공유

- 육아친화마을은 관련 부처가 있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책이 아님. 그러나 아이 키우기 좋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모두의 삶의 질을 고려하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음.
  -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육아문화 확산의 기초라 볼 때, 인프라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육아를 위한 필수 인프라 공급과 육아 공동체 문화 확산이 함께 보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짐.
  - 이를 위해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컨설팅과 사업 추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필요정보를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도록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을 제안함.[6)]
- 청년인구들이 거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있어 지역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필수 인프라의 개보수와 함께 육아공동체 문화 확산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임. 이에 더해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의 개선과 문화시설 등 삶의 질을 위한 환경이 조성 역시 중요한 요건임.
  - 특히 청년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향후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서 살기 좋은 마을,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을, 더 나아가 자녀도 함께 살길 원하는 마을이 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노력이 필요함.
  - 그런 점에서 '육아친화마을'은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도 행복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살기 편안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육아친화마을은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육아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육아친화적 정책이 필수적임.
  - 최근 울산과 부산에서 육아친화마을 시범적용 사례가 연구를 통해 시도되고 있어, 향후 타지역에서의 확대도 기대됨.

6) 2021년에 진행 중인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Ⅲ):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김나영 외, 진행 중」 연구에서 육아친화마을 인증절차에 대한 자세를 안내할 예정임.

| 참 고 문 헌 |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한국지방해정연구원(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수영·송현정(2021). 초저출산 경험 및 회복 국가의 특성 분석.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 4-21.

김유현(2021).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5(2), 337-367.

박시내(2021). 저[低]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KOSTAT 통계플러스, 봄호, 24-47.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21. 1. 26).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보도자료(2021. 9. 29)「KOSTAT 통계플러스」2021년 가을호 발간: 코로나19 시대 소비변화를 민간·공공 빅데이터로 분석, 데이터과학을 활용한 「감염확산 예측모델링」은 방역정책 지원에 효과적.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data, Jobs & ILO.